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성경은 구세주가 유태민족에서 안나온다고 예언돼

### 단지파 민족인 한민족에서 구세주 출현한다

구세주는 유태민족이 아닌 타 민족에서 출현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첫째, “나의 백성 아닌 자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며 나의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칭하리라. 이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稱)함을 입으리라(호세아 2:23, 로마서 9:25-26)”고 하였다. 여기서 ‘나의 백성’이 아닌 ‘자’라 했는데,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選民)이라 자부하는 유태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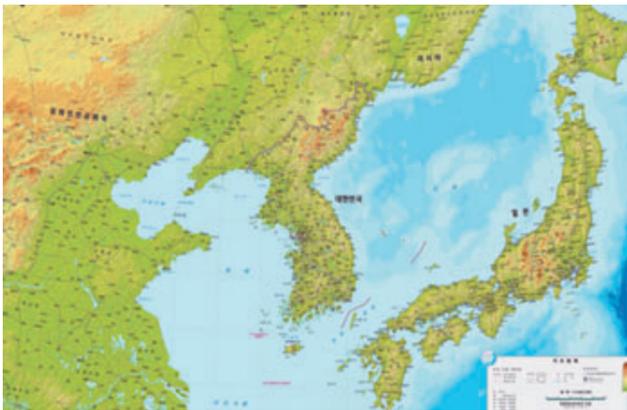
그런데 ‘나의 백성 아닌 자’라 했으니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겠다는 말씀이다. 더욱이 “이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즉 유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속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입으리라” 했으니 분명 유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리킨 말씀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 맺은 백성에게 주시리라(마태복음 23:23)”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유태민족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구세주는 과연 어떤 민족에게서 나타날까?

#### 구세주는 단군자손 중에서 나타난다.

구세주는 단군자손 중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단군자손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단(檀)지파 자손이다. 단지파는 아홉의 12아들 중의 한명인 檀(檀)을 말한다. 그 단(檀)의 이름에 임금 군(君)자를 붙여서



성경은 동방 땅끝 땅 모퉁이인 한반도에서 구세주가 출현한다고 예언되어 있다

단군(檀君)이라고 불렀다.

출애굽시대에 모세를 따라 나온 12지파는 가나안 북지까지 들어가서 각 지파는 정착할 땅을 차지했으나 유일하게 단지파만은 정착지를 잡지 못하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성경속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단지파는 지구상에서 멸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단지파는 지구상에서 멸절됐는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홉이 열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각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창세기 49:16)”라고 하여 심판권이 단지파에 있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 심판권은 하나님의 권세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인 심판권을 준 단지파가 지구상에서 멸절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단지파가 정착할 곳을 찾아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극동 반도인 한반도에 정착케 하여 단군 자손을 번성시켰다. 단지파인 단군민족은 하나님 이 중동의 유태민족과 완전 분리시켜 극비리에 오메가의 역사 즉 완성의 일을 할 주인공을 출현시킬 민족이다.

#### 극방 한반도에서 동방의 의인이 출현한다

이상의 내용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내용이 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유태민족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구세주 출현은 유태나라가 아니라 극동의 반도인 한국 땅에서 출현한다고 예언해 놓았다. 즉 이사야 41장 1절 이하를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누가 동방에서 한사람을 일으키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리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는 말을

“내가 동방에서 동방의 의인 한 사람을 출현시킬 터인데 주위의 섬나라들은 해당이 안 되니 그리 알고 잠잠하라”는 암시이다. 동방의 의인 한 사람을 출현시킬 나라는 “동방 땅끝” 즉 극동에 있는 나라를 말하며 극동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땅 모퉁이에서”라고 했으니 대륙에 연결되어 3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나라를 가리켰다. 이 얼마나 확실하고 놀라운 내용인가!

#### 유불선 각 종교에서 기다리는 분이 나오면 그분이 바로 주인공 구세주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언서인 격암(格菴) 선생(先生)의 유록(遺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格菴遺錄(격암유록) 十勝歌(십승가)에 八萬經內普惠大師(팔만경내보혜대사) 彌勒不之十勝(미륵불지십승)이요 正道令之十勝(정도령지 십승)이요 普惠之師上帝再臨 十勝(보혜지사 상제재림 십승)이니 儒佛仙興言之說 未復合理 十勝(유불선이언지설 말복합리 십승)이라 즉 팔만대장경의 보혜대사(普惠大師)가 말한 생미륵불도 십승지인(十勝之人)을 말함이요, 유가(儒家)에서 기다리는 正道令도 십승지인(十勝之人)을 말함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普惠師) 상제(上帝)도 다시 십승지인(十勝之人)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유불선(儒佛仙)에서 각기 기다려 온 그 주인공에 대하여 부르는 명칭은 달라도, 어느 명칭으로든지 한 분이 나타나면 모두를 지칭하는 한 분이므로 또 다른 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바로 조희성 구세주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69)

#### “사망의 조류와 영생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사망의 조류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역사라는 것은 흘러내려오고 있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인 고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하려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 보듯이 쳐다보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길어지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적은 수만 구원을 얻게 되는 호의 약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호의 호조건이 아니고 호의 약조건이 되면 소수만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구도의 길

### 자신을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종교인들은 말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 즉 양심의 소리대로 살라는 말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세주께서는 이와 반대로 자신을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상대를 속이는 것이 승리의 기본이므로 마귀가 되는 자신을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얼굴이나 몸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세가 당당하고 가슴을 편 상태로 있는 반면 위축된 마음을 가졌을 때는 몸도 쪼그라들고, 왜소해진다.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몸도 편안한 상태로 보이지만 마음이 급할 때는 몸도 긴장되어 있다.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GE의 CEO로 오랜 세월 이름을 날렸던 잭 웰치는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이랬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

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야만 자신감을 잃지 않게 되었고, 부하직원들도 난관을 뚫고 나갈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Amy Cuddy)는 “몸의 언어가 당신을 결정한다(Your body language shapes who you are)”는 제목의 TED(TED)강연에서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마귀가 바로 자신이다. 마귀는 자꾸 침착하고 형편없는 자신의 불굴을 보라고 권다. “너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잖아, 너라고 별 수 있어?”라고 영생할 수 없다고 유혹한다. 그때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한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허세가 되겠지만 이것은 자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 행동방향이 전혀 다르므로 허세가 아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나라는 주체영위도 이랬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

### 10월 본부재단 지역성적



#### 3지역 6개월 만에 1등 복귀

본부재단은 11월 3일 화요일 구역장회의에서 10월 성적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3지역이 4월에 이어 6개월 만에 1등을 차지하였다. 안명숙 승사의 노고 덕분이다. 2지역은 목표성금 100% 달성과 참여율 100%를 달성하며 지역 2등을 차지하였다. 경의적인 일이다. 6지역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기어이 목표성금을 100% 달성하였으며 더불어 참여율도 100%를 달성하였다. 참여율 100%는 실로 대단한 성적이다.

개인성적은 처음으로 공동 1위가 나왔다. 신순이 권사와 김인숙 집사가 모든 면에서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동률을 이루어 공동 1위가 되었다. 윤금옥 승사가 뒷심을 발휘하며 개인 2등을 차지하였지만 6지역이 4

등을 차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그쳤다.

윤봉수 회장은 “참으로 놀라운 열의다. 이대로만 가면 내년에는 빛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다. 11월에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 빛을 다 갚으면 그 여력을 전도하는데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2등: 2지역(지역장: 강종태, 지회장: 김혜선)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구역 1등: 45구역(구역장: 신순이) 2등: 58구역(구역장: 윤금옥) 3등: 21구역(구역장: 안명숙)
- \*개인 1등: 신순이 권사, 김인숙 집사 2등: 윤금옥 승사 3등: 강유미\*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재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재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재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